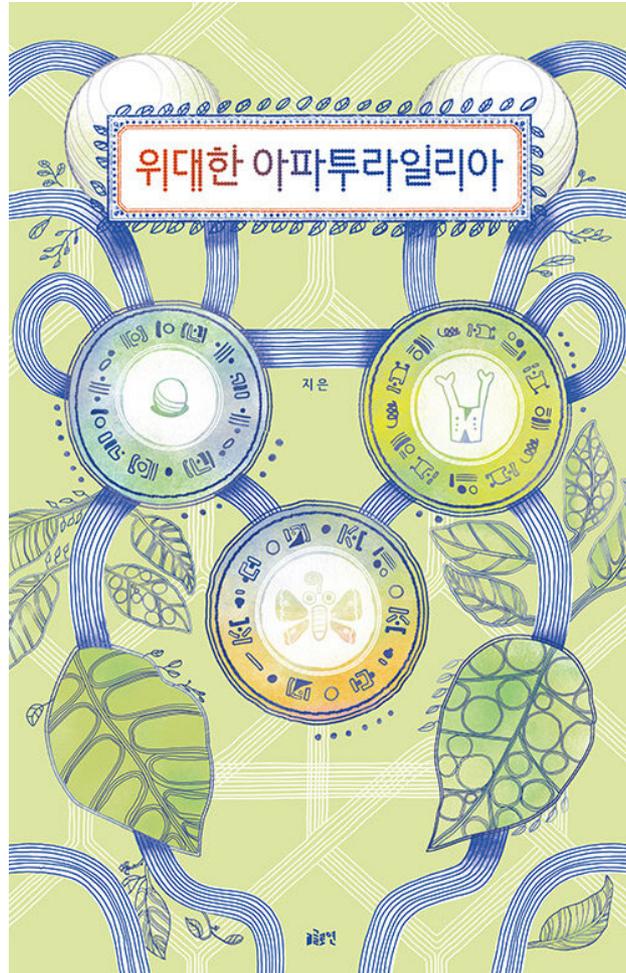


# 위대한 아파투라일리아

지은 글·그림



주제	관찰과 상상으로 작은 세계 들여다보기
권장 차시	4차시
대상 학년	5~6학년
관련 주제어	작은 세계, 곤충, 관찰, 발견, 상상, 캐릭터, 미니어처
교육 과정 연계	국어 [6국05-02]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과학 [6과11-03] 볼록 렌즈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습을 관찰하고 볼록 렌즈의 쓰임새를 조사할 수 있다.  미술 [6미01-01] 자신의 특징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다. [6미02-02] 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
작성	백암초등학교수정분교 김선정 선생님

##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퀵이, 칭이, 라뮤, 콕 등 낯설기 그지없는 생명체들이 어울려 사는 곳, 팝나라. 팝나라에 어느 날 거대한 생명체가 나타나자, 주민들은 호기심, 두려움, 적개심 등 자신들의 성격에 따라 반응을 하며 시청광장으로 모여든다. 공격성이 강한 무리들이 거대 생명체를 공격하던 중 팝나라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비가 내리고, 그 사이에 거대 생명체는 모양을 바꾸어 공중에 붕 떠오르게 된다.

그 모습을 본 주민들은 거대 생명체를 신성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고 제물을 바치며 경배를 올린다. 그 때, 거대 생명체가 반으로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파란 얼굴이 나와 하늘로 날아오른다. 오색나비 ‘아파투라일리아’의 탄생 과정을 사시나무의 잎사귀 위에 그려놓은 작가의 재미난 상상의 지도가 위트 있고 매력적이다. 작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풍부한 볼거리로 이야기하는 그림책이다.

## ■ 학습 목표

- 볼록 렌즈를 사용하여 작은 세계를 관찰하고 새로 발견한 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 그림책 속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자신의 특징이 드러나게 캐릭터로 표현할 수 있다.
- 미니어처 아티스트의 작품을 감상하고 나만의 미니어처 작품을 만들 수 있다.

## ■ 수업 준비

작은 크기의 사물이나 자연물은 쉽게 지나치거나 놓치기 쉽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작은 세계에 사는 다양한 존재들을 만날 수 있다. 눈에 띄지 않던 작은 세계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작가처럼 우리 주변의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일은 새로운 발견과 재미난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현실에서는 작은 존재에 불과했던 나비가 나뭇잎 세상에서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듯이 이 수업으로 작아서 더 위대한 것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준비물** 현미경 사진, 돋보기, 스마트폰, 작가가 들려주는 캐릭터 이야기 및 메모리 게임 활동지, 나의 캐릭터 만들기 활동지, 포스트잇, 미니어처 사람 등

## ■ 학습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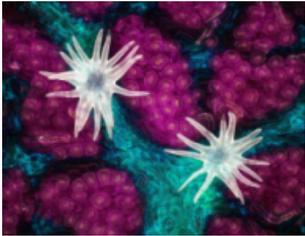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무엇을 찍은 사진일까? -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작은 세계 사진 감상하기	1차시
	돋보기로 들여다본 세계 - 돋보기로 작은 세계 관찰한 뒤 발견한 것 나누기	
읽는 중	그림책 읽으며 내용 파악 및 질문 나누기 - 그림책 속 세계와 현실의 세계 비교하며 감상 및 질문하기	1차시
	<등장인물 매칭 게임> 활동하기 - 실제 곤충과 등장인물 매칭 게임 해보기	
읽은 후	<나의 캐릭터 만들기> 활동하기 - 나의 특징(외모, 성격, 습관, 좋아하는 것 등)을 생각하여 캐릭터를 만들기	1차시
	<위대한 미니어처 세계> 활동하기 - 미니어처 아티스트의 작품 감상 후 나만의 작품 만들기	1차시

### 읽기 전

#### 1. 무엇을 찍은 사진일까?

■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작은 세계를 찍은 사진을 감상하며 ‘무엇을 찍은 사진일까?’ 추측해 본다.

예: 니콘의 스몰월드 현미경 사진전

		
〈오크 잎〉, 제이슨 커크(2021)	〈눈송이〉, 조른 N. 홉크(2021)	〈토마토에 핀 곰팡이〉, 딘 러먼(2017)

(출처: <https://www.nikonsmallworld.com/>)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197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니콘의 스몰월드 현미경 사진전은 말 그대로 '작은 세계'이다. 광학 현미경 렌즈로 생물, 물질의 아름다운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고 사진으로 출품하는 경연으로 수상작은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고 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 2. 돋보기로 들여다본 세계

- 돋보기를 들고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며 평상시 눈에 띄지 않았던 작은 생물, 사물 등을 살펴본다.
- 친구와 짝을 이뤄 서로 발견한 것들을 카메라로 찍어 준다.
- 낮고 작은 세상을 들여다보며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이야기해 본다.
- 만약 그 안에 생명체가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본다.
  - 작은 크기의 생물이나 사물이 아니더라도 돋보기로 보았을 때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면 어떤 것이든 관찰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 스마트폰의 '돋보기 앱'을 활용하여 확대와 사진 촬영을 동시에 진행하면 좋다.

## 3. 그림책의 내용 예측하기

- 표지의 그림과 제목을 보며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예측해 본다.
  - 표지에 무엇이 보이나요?
  - 표지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 이 그림책은 무엇에 관한 내용일까요?
  - 제목인 '아파투라일리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읽는 중

## 1. 그림책 읽으며 질문 나누기

- 귀로는 이야기를 들으며 눈으로는 그림에 집중하며 그림책을 읽는다.
-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찾으며 읽는다.
- 등장인물이 하는 말의 특징을 살펴본다.
- 작품 세계와 현실 세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이야기 나눈다.
  - 팜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 (앞)면지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모습이 익숙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곤충의 모습을 한 인물이 있나요? 어떤 인물인가요?
  - (첫 번째) 장면에서 등장하는 등근 것은 무엇일까요?
  - 퀘이와 칭이가 하는 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코스미를 보고 떠 오르는 곤충은 무엇인가요?

- 팍나라에 나타난 ‘몸통은 길고 머리에는 뿔이 달린 거대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 췌기연구원들이 거대 생명체가 남긴 털과 피부조직을 수집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 주민들이 거대한 생명체를 공격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 거대 생명체가 모습을 바꾼 까닭은 무엇일까요?
- 공격을 하던 주민들이 거대 생명체를 신성한 존재로 생각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 ‘아파투라일리아’는 무엇이었나요?
- 작품 세계와 현실 세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표지를 보며 예측했던 내용과 실제 내용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무엇인가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Tip. 장면마다 읽어야 할 이야기와 그림으로 가득한 그림책이다. 페이지를 그냥 넘기지 않고 장면마다 질문을 해보거나 캐릭터들을 찾아가며 읽으면 더 좋다. 이때 실물화상기 등으로 그림을 확대해 보여주면 작은 캐릭터들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른 그림책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여러 번 읽는 것이 좋다.

## 2. <등장인물 매칭게임> 활동하기

■ 작가가 들려주는 캐릭터의 성격과 탄생 이야기를 들으며 실제 곤충과 등장인물 매칭게임을 해 본다.

- 글로벌 홈페이지(<http://gloyeon.com/downloads/>) 자료실에 해당 그림책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있다. ‘작가가 들려주는 캐릭터 이야기’와 ‘캐릭터 메모리 게임 카드’를 이용하여 매칭게임을 하면 편리하다.

Tip. 이 그림책은 곤충에 관한 정보를 주기 위한 그림책은 아니기에 매칭게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작가가 실제 곤충을 관찰하고 캐릭터로 만든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후속 활동인 ‘나의 캐릭터 만들기’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읽은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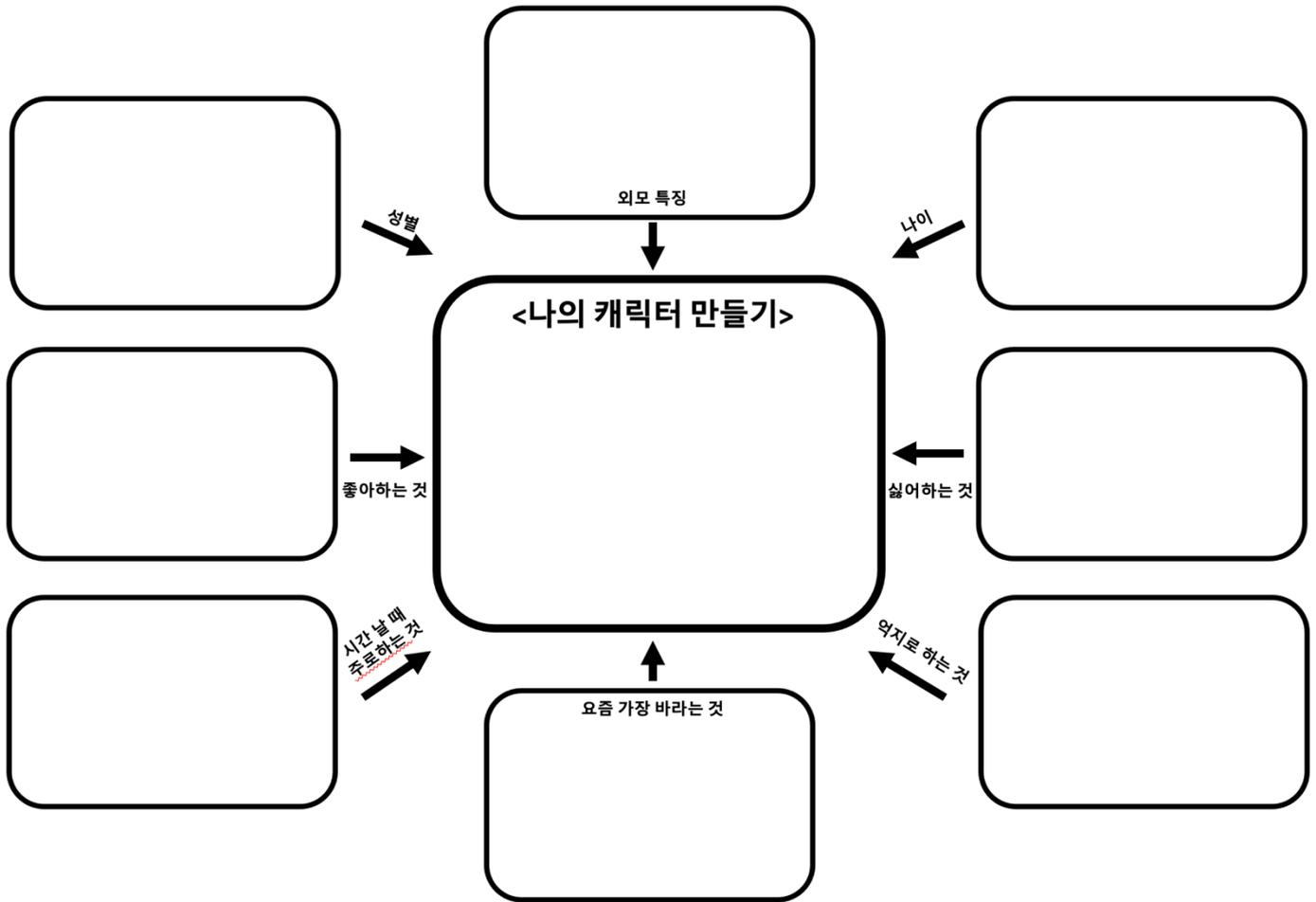
## 1. <나의 캐릭터 만들기> 활동하기

■ 앞면지 속 ‘팍나라를 빛내는 인물들’ 가운데 나와 생김새, 성격 또는 좋아하는 것이 비슷한 곤충을 찾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눈다.

- 가족 또는 친구, 내 주변 인물들과 비슷한 곤충을 찾아 소개해도 좋다.

■ 실제 곤충을 그림책 캐릭터로 만든 작가처럼 나의 특징(외모, 성격, 습관, 좋아하는 것 등)을 생각하여 나의 캐릭터를 만들어 본다.

예: <나의 캐릭터 만들기> 구상용 활동지



- 나의 캐릭터를 포스트잇에 옮겨 그린다.
-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생각나는 말을 내 이름이나 캐릭터에 어울리게 한 마디씩 써본다.  
예: “배고프짱”, “나랑 놀짱”, “와! 재미있짱” 등
- 칠판 또는 창문에 나뭇잎 형태로 포스트잇을 이어붙여 ‘우리 반 팝나라’를 만들어 본다.
- 캐릭터가 등장하는 간단한 이야기를 만들어도 좋다.

## 2. <위대한 미니어처 세계> 활동하기

- 내가 아주 작아진다면 사물과 자연이 어떻게 보일지 상상해 본다.
  - 사람의 눈에는 작고 귀여운 존재지만 나뭇잎 세상에서는 거대한 생명체인 나비와 그를 바라보는 다양한 곤충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그림책의 특징을 살려 사람이 작은 존재가 되었을 때 사물과 자연이 어떻게 보일지 상상하고 이야기 나눈다.
- 미니어처 아티스트의 작품을 감상한다.
- 미니어처(miniature) 아티스트와 작품  
예: 타츠야 다나카(Tatsuya Tanaka)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을 이용해 위트있는 미니어처 세계를 구축하는 타츠야 다나카는 2011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미니어처 캘린더』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조금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아티스트의 생각은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주고 있다.



(출처: <https://miniature-calendar.com/>)

- 작품을 보며 내 주변 사물이나 자연물을 상상을 통해 변형해 본다.
  - 미니어처 사람 모형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본다.
- 예: 임태현 학생 작품



- 친구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한다.
-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세계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눈다.
- 일상 속 작은 사물이나 물질을 보며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상상에 대해 더 나누어 본다.